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2006년도 표어 ☉

교회, 백성의 위로자(사40:1)

☉ 행동지침 ☉

- 1. 세계 복음화
- 2. 교회 천국화
- 3. 문화 기독교화

† 발행인 : 이 중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 (02)558-1106 팩스: (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시편 강해

피할 수 있는 바위 II

(시편 31:1-24)

성도가 안타까운 일을 만날 때 살아계시고 능력 많으신 하나님,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찾는 길밖에 없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견고한 바위가 되시고 산성이 되신다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면 언제든지 그에게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초미를 다투는 안타까운 지경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기도를 합니다.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7절).

하나님은 부부간에도 알지 못하는 사정을 보시고 아십니다. 문제를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1. 그러하여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14절).

시인은 자신이 처해 있는 사정이 너무 안타까워 슬피 울고 있습니다. 이때에도 시인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현재의 절망과 위험을 주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15절).

슬픔에 처한 현실을 아뢰던 시인은 갑자기 자신의 앞날이 주님의 손에 있다는 엄청난 고백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주님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의 모든 시대가 주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15절). 하나님은 선한 것만 주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것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는 선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공할 때뿐만 아니라 실패했을 때도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실패의 시간도 승리의 시간처럼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늙은 때도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젊을 때의 강건함도 지나가고 새로운 일을 시작할 기회도 사라졌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에 임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롬 8:28).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이유는 결국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넘어지고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요سع과 같이 실패가 역전되어 대 성공을 이루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드로 집의 목동으로 살았습니다. 애굽의 왕자로서 애굽의 학술을 통달한 모세가 40년 동안 낮아지고 찢기고 빼앗기는 훈련을 받은 후 마침내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찾고 의지했을 때 하나님이 비로소 모세를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2.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한 찬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 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이중윤 목사(서울교회 담임)

경험되어진 선, 이 세상에서 부분적으로 보여진 선도 아름다운 것이지만 그보다 하늘에서 경험될 선은 최상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 생의 모든 날들, 곧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따를 것입니다.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19절).

다윗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하는 기도를 드린 후에 이와 같은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선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선과 사람의 눈앞에 베푸신 선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감추어져 있는 선이고 다른 하나는 나타낸바 된 선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보는 것을 우리도 볼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다른 이들은 볼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더 큰 선으로 보여주십니다. 불신자들은 천국을 보지 못하지만 우리는 볼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위하여 쌓아 두신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번영의 삶을 살도록 하십니다.

미국의 갤럽조사기관의 George Gallup은 “아주 객관적 자료에 의하면 종교적으로 동기 부여를 받고 사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보다 더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이들은 더 적은 이혼율, 더 낮은 편견, 사회적인 선을 베푸는 일에 적극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들 눈앞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선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을 쌓는 사람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는 성도는 모든 일을 기쁨으로 감당합니다. 믿음의 기도에 대한 응답도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입니다.

이미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는 하나님의 선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장차 주어질 선이 또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선이 있으나 앞으로 다가올 선이 또 있는 것입니다. 장차 받을 복은 현재에 받는 복보다 훨씬 더 큰 것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쁨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와 같이 영원히 살리로다”(시 23:5-6).

시편 23편서 다윗은 과거와 미래를 바라보면서 노래합니다. 우리는 아주 적게 기도 했는데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큰 것으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경험되어진 선, 이 세상에서 부분적으로 보여진 선도 아름다운 것이지만 그보다 하늘에서 경험될 선은 최상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 생의 모든 날들, 곧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따를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본 편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원수가 에워싼 성에서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혼자 찬양할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다윗의 동료들도 함께 해야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권면합니다. 이것이 진리를 지키는 방법이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그를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14절).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주님만을 의지하고 사랑한다고 하는 고백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 이중윤 목사 방송설교 ■

- TV: **케이■ CH 42(기독교TV)** 매주 월 오후 1시30분 · **위성 CH 412(CBS TV)** 매주일 밤 9시(각 지역별로 케이블 TV로도 시청가능)
- **KISB(코리아 위성방송)제3채널**(북중미 지역 해외방송)매주 월 오후 1시30분(한국시간)
- **라디오: HLKY 98.1 MHz(기독교 방송)** 성서강해 매주 화 오전 5시30분 · **HLKX 106.9 MHz(극동 방송)**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 오전 9시
- **인터넷: 기독교 TV** (<http://www.cts.tv>) · **한국어 인터넷방송** (<http://www.c-highway.com>)

말씀 · 기도로 가득 찬 홍해작전

6월6일(화) - 6월25일(주일) 20일간

이번 홍해작전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말씀과 기도로 가득찬 은혜의 시간으로 준비된다.

홍해작전본부는 모든 성도가 참석하는 말씀작전, 기도작전, 전도작전의 3대 작전을 중심으로 운영한다.

‘말씀작전’은 조기 취침 조기 기상하여 맑은 정신으로 말씀을 받는 작전으로 10시전 취침 운동을 전개한다.

‘기도작전’은 전 교인이 홍해작전 기도제목으로 기도하되 교역자들로 구성된 중보기도팀이 성도들이 요청한 중보기도내용과 국가의 평안과 민족 복음화, 그리고 북한의 구원을 위하여 특별히 기도한다.

‘전도작전’은 전 교인이 이번 홍해작전 기간 동안 1인 이상의 태신자를 작성하고 잉태하여, 교회설립 기념일에 결실하는 것을 목적으로 70인 전도대와의

협조 하에 전개된다.

홍해작전을 위한 준비는 교회학교에서도 전개된다. 교회학교 각 부서는 이번 홍해작전을 맞아 새벽 기도회 참석은 물론 태신자 작성, 태신자 위한 특심 기도회, 짜궁전도, 총동원의 날, QT모임, 개전기념파티, 교사기도회 등 다양한 행사들을 준비하고 있다.

홍해작전본부는 더욱 많은 성도들이 참석하도록 하기 위해 교회 7층을 야간에 개방하여 교회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사시는 성도들과 연로하신 성도들의 홍해작전 참여를 돕기로 했다.

한편 2006 홍해작전기간에는 **‘목회자 구국기도회’**, **‘CBS 시청자 대회’**, **‘북한 주민을 위한 6.25 세계기도일’** 등의 큰 행사들이 열린다. 모든 성도들이 더욱 많은 기도와 관심으로 참여하기를 바란다.

그리스 핸드벨 콰이어 군부대 찬양선교 나서 6월 6일(화) 육군 706 특공연대로

매주일 2부 예배 시간에 아름다운 핸드벨 소리로 찬양을 드리는 그리스 핸드벨 콰이어(대장: 이동만 집사 지휘: 이해경 선생)가 활동 영역을 확대해 군부대 찬양선교에도 나선다.

이번에 찬양선교에 나서는 군부대는 육군 제 706 특공연대 새생명 교회로 지난해 우리교회가 군 복음화를 위해 선교사로 파송한 이경현 목사가 시무하고 있다. 새생명 교회는 비전 2020 운동에 주력하여 군복음화에 최우선 목표를 삼고 있으며, 특히 다가오는 추수감사절에 진중세례 장병 100명을 목표로 총력 전도를 하고 있다.

그리스 핸드벨 콰이어는 이경현 선교사 중보기도팀과 비전 2020 임원들과 함께 6월6일 오전 9시 교회를 출발할 예정이다.

제13기 찬양대 양성반 수료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지난 7주간 찬양대원의 기본 소양을 배운 제13기 찬양대 양성반이 오늘 수료한다.

권택숙 김경환 김광태 김형희 박정순 서정숙 손태현 신형범 안선광 오광환 유근홍 유율상 윤석원 이성이 전장복 정명숙 최종희 한난숙 한인진 현홍희 이상 20명

바울 선교회 농촌전도 간다 6월6일(화) 안동 오치교회

바울선교회(회장 오치열 집사)는 6월6일(화) 홍해작전을 마치고 바울선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경북 안동의 오치교회에서 하루 동안 농촌전도에 나선다.

강남노회 교회학교 어린이대회 입상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시상

- <그리기-유년부>
 - 금상 이주영 정채희
 - 은상 송한나 김지수 이은 손서현 권아윤 · 동상 안수진 김예원
- <글짓기-유년부>
 - 은상 홍라혜 · 동상 윤승연
- <성경암송-유년부>
 - 금상 박연준 김동재
- <동화구연-유년부>
 - 금상 김민주 · 은상 주하민
- <그리기-초등부>
 - 동상 김예림 · 은상 최희연 진영민
- <글짓기-초등부>
 - 금상 이준현 · 은상 김성경 강미선
- <동화구연-초등부>
 - 은상 김민선
- <성경의워쓰기-초등부>
 - 금상 박연경 · 은상 김동준 김성은 · 동상 전희준 이상 26명

1. 요덱스토리 공연 : 목회자 구국기도회 6월19일(월)

북한 구원을 위한 목회자 구국 기도회가 6월19일(월) 오후 1시 우리교회 본당에서 시작된다.

목회자 구국 기도회는 김정일의 폭정 하에서 신앙의 자유를 빼앗긴 북한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열리는 것으로 북한구원운동본부대표회장:이종윤 목사 상임회장:김상철 장로) 주관 하에 약 3,000여명의 목회자들이 참석하여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하게 된다.

또한 이날 저녁 7시부터는 최근 연극 무대에 올려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킨 요덱스토리가 공연된다.

요덱 스토리는 탈북자 출신 감독이 북한에서 경험한 실화를 토대로 제작한 것으로 북한의 실상과 우리가 왜 북한의 구원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 그 당위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줄 것이다.

요덱 스토리 공연은 모든 교인들과 우리의 이웃들에게 개방되는 것으로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바란다.

2. 잠실 펜싱경기장에서 나라 위한 기도회 : CBS 실황중계 6월20일(화)

CBS 시청자 대회가 6월20일(화) 잠실펜싱경기장에서 오후 6시30분부터 열린다. 한국교회의 영적 각성과 나라를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지기 위해 마련되는 자리로 교계지도자와 CBS임직원, 전국 각지의 시청자들이 함께 어우러진 대회로 준비된다.

개인적 신앙결단과 함께 침체된 한국교회에 새로

운 활기를 불어넣고 새롭게 거듭나길 바라는 간절한 기도가 이어질 이번 시청자 대회에서 우리교회 이종윤 목사가 주강사로 서게 된다. 대한민국 성도들의 각성과 회개 그리고 기도를 촉구하게 될 이 자리에서는 우리 목사님을 위해 모든 성도들의 뜨거운 기도와 적극적인 참여가 요청된다.

3. 북한 주민을 위한 6.25 세계기도일

전 세계의 크리스찬들은 6월 25일 김일성과 김정일 부자의 대를 이은 폭정에 시달리며 신앙의 자유를 잃어버린 북한 주민의 구원을 위해 기도한다.

이와 같은 북한주민을 위한 6.25 세계기도일 선포는 지난 5월 중에 열린 아시아 로잔 대회에서 이종윤 목사의 발의로 결정된 사항이다.

이제 동족상잔의 한국전쟁이 일어난 6월25일은 전 세계가 북한 주민 구원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은혜의 날로 바뀌게 된다.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빠른 시간 안에 북한 김정일 정권이 무너지고 신앙의 자유가 회복되기를 기도한다.

내일부터 14차 KIMCHI 신학세미나

6월5일(월)-14일(수)까지 10일간

동아시아의 복음화를 위해 열리는 제14차 KIMCHI 신학세미나가 내일부터 10일간의 일정이 시작된다.

이번 KIMCHI 세미나는 'Our Challenge for 21st Century'를 주제로 동아시아 교계지도자 30여명이 참석하게 된다. 참석하는 모든 이들이 은혜 받고 자

국 복음화를 위한 선교의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하다.

또한 교회에서 이분들을 만나게 되면 반갑게 인사도 나누며 평안히 말씀과 기도와 토론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배려와 협조가 필요하다.

9대집사·8대권사 피택된다

맡은 자의 구할

지난주일 찬양예배 후 본당에서 열린 집사·권사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 투표결과 9대 집사로 60명, 8대 권사로 63명이 각각 피택되었다. 이번에 피택된 이들은 6월3일(토)부터 시작된 15주의 교육을 마친 후 11월 교회설립 기념주일에 임직을 하게 된다. 피택자들이 연단을 통하여 정금과 같이 주님의 귀한 종으로 서기를 기도한다.

▶ 피택집사



1. 차도훈 2. 손영호 3. 윤영구 4. 고성진 5. 이종창 6. 홍승전 7. 원용규 8. 윤태욱 9. 이승래 10. 원용범



11. 서명조 12. 김진달 13. 이영조 14. 권혁우 15. 박광식 16. 최임수 17. 김진환 18. 장덕 19. 강낙훈 20. 송상식



21. 주동재 22. 김재성 23. 이강진 24. 한주찬 25. 진교남 26. 신종건 27. 김형배 28. 은기장 29. 김영빈 30. 오길탁



31. 강승용 32. 이병헌 33. 김영호 34. 한상준 35. 박익서 36. 배재승 37. 최낙준 38. 윤동수 39. 김원웅 40. 신항범



41. 이학명 42. 김광욱 43. 힌광마 44. 예원식 45. 김만성 46. 김익환 47. 김재중 48. 임낙식 49. 박조현 50. 윤종덕



51. 김광태 52. 안성현 53. 박태신 54. 김원중 55. 김현관 56. 진승근 57. 차영도 58. 송인수 59. 박형수 60. 홍은표

젖은 충성이라!

▶ 피택권사



1. 서익숙



2. 윤숙희



3. 김사라



4. 소선자



5. 이지력



6. 신정순



7. 정경자



8. 이관모



9. 서경애



10. 나기태



11. 김영희



12. 원영애



13. 조정옥



14. 박미혜



15. 김효순



16. 백영자



17. 함연호



18. 김영숙



19. 허숙



20. 이재동



21. 김정임



22. 고완순



23. 한옥순



24. 박천희



25. 위성남



26. 주화인



27. 김선영



28. 권은주



29. 왕경애



30. 차명숙



31. 송혜숙



32. 이영희



33. 강윤숙



34. 김진희



35. 송동선



36. 채경희



37. 김영란



38. 서영세



39. 박성금



40. 김선이



41. 박선자



42. 노순례



43. 김밀순



44. 나금주



45. 남옥진



46. 마은숙



47. 김지은



48. 조영자



49. 김미자



50. 서경숙



51. 남영주



52. 최양자



53. 서영희



54. 주의현



55. 유주현



56. 이수경



57. 오행숙



58. 김은숙



59. 정복순



60. 김영정



61. 노경신



62. 손현순



63. 박순자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자 아니하고 술에 인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를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디모데전서 3:8-13)

홍해작전을 시작하며

지금은 기도할 때



왕경래장로
(홍해작전 참모장 11교구)



호국 보훈의 달 6월은 조국을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바친 선조들을 기억하며 역사를 돌아보게 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는 매년 6월이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오늘의 현실을 돌아보고, 출애굽 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여 홍해가 갈라졌던 것같이 국가, 교회, 가정, 개인의 홍해가 갈라지기를 소원합니다.

2006년도 홍해 작전은 '교회 백성의 위로자사 40:1' 라는 말씀을 주제로 현충일인 6월6일 새벽부터 6월25일 6.25사변 기념일까지 20일 동안 수행되며 이종운 목사님의 능력 있는 말씀과 7대 기도 제목을 붙들고 전교인이 합심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체험하는 복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의 현실을 바라보면 국가의 정체성이 흔들리

고 경제 불황, 사회 양극화 현상으로 정치, 경제, 국방, 교육, 사회가 사분오열되어 부딪히는 소리, 깨지는 소리로 시끄럽고 급기야는 조국이 좌경화하는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암담한 현실 속에서 어디서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우리의 소망되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위로자시요 이 백성의 위로는 하나님의 교회밖에 없습니다.

서울교회 온 성도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 새벽을 깨우며 다 함께 홍해 작전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받고 회개와 결단의 시간을 가지며 가정과 교회와 국가가 직면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홍해작전의 구경꾼은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기도로 준비하고 참전하여 승리의 나팔을 불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모집시다. 6월6일 새벽 5시 서울교회에서...

<2006년 홍해작전 기도제목>

1. 주여, 용서하소서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민족의 모든 허물과 죄를 회개 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2. 주여, 믿음을 주옵소서
실의와 절망과 불신에 빠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3. 주여, 위로하여 주소서
상처 입은 백성과 분단된 조국이 창조주 하나님의 처유하시는 손길을 기다리오니 위로하여 주옵소서.

4. 주여, 속히 이루어주소서
백성의 위로자며 세계교회의 향도자로 선교와 교육과 구제의 세 기둥을 세운 우리교회의 기도제목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5. 주여, 우리 앞에 놓인 홍해를 갈라주소서
가정과 교회와 민족이 건너야 할 홍해를 주님의 권능과 은혜로 갈라주소서 시온의 대로처럼 믿음으로 밟고 건너게 하옵소서.

6. 주여, 감사합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서울교회 성도들이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돌리오니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7. 주여,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주님 위하여 살고 주님의 몸 된 교회 때문에 일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말씀따라 충성하겠습니다.

새벽마다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호국의 달을 맞으며..

크리스찬의 나라사랑

이갑진 장로
(영어예배부 부장 12교구)



구약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나라가 망하는 데는 왕과 그 측근 그리고 지도층의 영적, 물질 부패와 정신 못 차린 백성들의 뇌화부동이 만

든 합작품임을 쉽게 알 수 있다. 지금의 우리 현실은 이러한 전철을 밟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정도가 이미 도를 지나친 것 같다.

적과 동맹의 구분이 거꾸로 가는 세상이 되었다. 어느 칼럼니스트는 '우리 나라는 이미 공산화는 되었고 이제 통일만 남았다' 라는 글을 기고하였다.

지금은 깨어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야 할 때다. 이 나라는 우리의 삶의 터전이요 바탕이다.

지구상 60억 인구 중 단 하나 밖에 존재하지 않는 내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태어나 살아야 하는 의미

가 무엇일까? 우리는 크리스찬의 관점에서 그 답을 찾아야 한다.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이며, 그가 택하신 크리스찬들을 통하여 일하게 함으로써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크리스찬의 국가관이라 확신한다. 이것은 곧 하나님을 부정하는 공산주의와는 야합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이기도 하다.

크리스찬들은 마땅히 이러한 국가적 정체성으로 가장 확고하게 무장된 자들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면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나라를 사랑하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 그 정성과 열심으로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 나아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당신의 생명을 주셨듯이 우리도 조국을 위해 나의 목숨을 바치겠다는 각오와 결단이 있어야 한다. 이것이 크리스찬의 나라사랑의 길이다.

이번 현충일에는 동작동 현충원으로 가보자.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수많은 젊은이들의 묘비 석을 바

라보면, 나의 조국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지상의 터전으로서, 나의 소중한 목숨까지도 바쳐서 지켜야 할 가치 있는 대상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다짐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



→ 6.25 당시 끊어진 자유의 다리를 건너는 피난민들

2006 홍해작전

2006 홍해작전을 기다리며

정치는 집사(9교구)



일본에서 컴퓨터그래픽회사를 다녔던 나는 97년 그동안 모은 돈과 가족의 지원금을 모아 사업체를 세우게 되었다. 그러나 1년만에 많은 돈을 손해보고 살던 집의 전세금과 빚까지 지게 되어버렸다. 당시 서울교회 청년 부회장을 역임하면서 열심을 다하고 있었던 시절이라 나에게서는 상상 이상의 큰 시련이 아닐 수 없었다.

다시 취업을 생각했지만 정상적인 직장생활로는 1년 동안 투자한 돈을 다시 모으기까지 너무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했기에, 보름여동안 금식하며 새벽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

신 후에 정금같이 내음을 입으리라” 고백한 욥의 시련과 인내를 통하여 나 자신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으며,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사랑을 보여주셨다. 20만 원짜리 공동사무실에서 책상하나로 다시 재기하게 되었다. 더 이상 아무 욕심도 없었고, 아무런 후회도 없었다. 그저 나를 믿고 기다려 주신분들에게 다시 웃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뛰어다녔고 급속도의 신장을 가져왔다. 일본과 동남아 일대의 많은 업체에서 업무제휴를 신청해왔고 많은 교류를 맺게 되었고 업계 선두그룹의 일원으로 부상되었다

10년 동안 회사를 운영해 왔고, 디자인업무를 기반으로 골프잡지와 골프쇼핑을 접목시킨 잡지를 활성화 시켜가고 있으며, 중국에 디자인 학원설립과 한.중 골프 아카데미 부설학과를 설립하려고 하고, 일본

과는 골프용품을 수출입하는 등 나는 또 다른 내일을 준비하고 있다.

나는 바다를 건너고 있다고 생각한다. 시냇물을 건너는 사람은 넘어져도 옷만 버리지만 폭풍우가 휘몰아치는 바다에서 빠지면 죽는다. 때로는 회사의 오너가 자랑스럽기도 하지만 때로는 더 큰 두려움이 있다. 하지만 주님과 함께 저 홍해를 건너면 나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신대륙을 발견할 것이며, 그곳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죽이시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신다. 이제는 그분의 전적인 경영을 바라보며 내일을 기다린다. 하지만 이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여지기를 기도한다. 특히 나는 사업의 열매를 통하여 중국과 일본의 선교사업을 지원하는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2006년! 새로운 꿈과 현실을 보여주시는 주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 한해도 내손을 잡아 이끄시어 가정과 직장과 교회의 홍해를 주의 은혜로 건너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를 그리며..

산 같은 나의 아버지

신동기 권사(12교구)

아버지는 그냥 거기 앉아 있는 산이었다. 아버지는 외로움도 절대 고독도 없는 산인줄 알았다.

아버지는 하늘이었다. 가끔 구름이 지나가곤 했지만 늘 푸르러 우리의 꿈이었고 세상의 최고 부자 아버지였다.

기분 좋을 때 헛기침을 하시는 과묵한 아버지. 많은 자식들 등록금 내는 날은 잊지 않으시고 집에 오시다가 어려운 친구를 만나면 먼지까지 다 털어 주고 빈 주머니로 너털웃음을 웃고 들어오시는 아버지. 우리 형제는 그런 아버지를 너무 좋아하고 그 사랑 속에 자랐다.

예수 믿는 어머니에게는 천사라는 별명을 불러주셨던 아버지였지만 당신만은 예수 믿을 수 없는 용감한 남자였다. 늘 정직하고 성실하면 그것으로 천국에 가는 줄 알고 사신 분이셨다. 세상에 법이 없어도 사는 사람이라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주위 사람들이 칭찬하지만 아버지는 일흔 넘도록 세상과 짝하며 일년에 제사를 9번이나 지낸 분이다.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김일성은 예수를 믿어도 너희 아버지는 안 믿을 거라고 장담했지만 아버지

는 하나님께서 택한 아들이었기에 아버지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은 기다림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나는 지옥에 갈 테니 너희들만 천국에 가라고 억지 부리시던 아버지께서 어느 날 이 죄를 어떻게 하냐고 울먹이시며 가슴 치실 때 우리는 드디어 예수님 앞에 가실 때가 되셨다고 하얀 깃발을 펴며 승리의 노래를 불렀다.

드디어 온 친척들과 온 교인들이 함께 모여 눈물로 예배를 드렸으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 무거운 죄의 짐을 주님의 보혈로 다 용서함을 받으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 주님의 인 치심을 받으셨다.

아버지는 말년에 큰 성경책을 손에서 떼지 못하시고 다음 주일을 손꼽아 기다리셨다.

그렇게 좋아하시던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늦은 때에 부르셨는지...

늦은 부르심이었지만 예수님이 그 인생 안에 계시어서 아버지의 남은 날을 더 복되게 하셨으며 그래서 우리 형제들은 두고두고 영생을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 드립니다.

지금은 천국 생명나무 강가에서 하늘 옷자락을 휘날리며 영광 가운데 주님과 함께 계시는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동정

■ 이종운 목사는 6월4일(주일) 오전 8시에 방송되는 극동방송 FEBC초대석에서 대담한다.

■ 개업 : 김재길 성도, 장명순 권사(9교구) 기와집 순두부(분당점, 서현동) T. 031-709-9866, 704-0331

■ 박덕순 집사(5교구 임병권 집사 부인) -경기도 의원 당선

■ 주간식당봉사: 모세선교회(6월4일) 도르가전교회(6월11일)

■ 금주의 식사제공: 최상도 성도 유승윤 성도 가정 (결혼 감사하며)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영어예배	주일 오전 11시20분	
수요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30분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30분	

서울 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홍해작전 · 김치 신학세미나 위하여
2. 피택집사 · 권사 교육과정에 은혜 충만토록
3. 북한주민 구원을 위한 세계기도일(6월25일)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4. 호산나 복지법인과 소외된 이들을 위한 사랑의 집터를 위하여

교회오시는 길



▶ 대치역 2번 출구에서 걸어서 3분 거리